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인격은 넷, 다리는 셋인 최적의 조합>의 줄거리 :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의 몸을 벗고 예수님의 몸으로 갈아입음으로써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장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직면하면, 이 땅에서는 나의 지정의육 결합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사위일체 네 인격에 다리 셋 달린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나의 지정의육 결합체를 지팡이로 삼아 당신의 주권의 두 다리로 걸으시면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인생이 됩니다.

인격은 넷, 다리는 셋인 최적의 조합

(출애굽기 4:18~23)

18.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한 사명을 위임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언급합니다.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는 땅에 닿는 다리가 세 개입니다. 모세의 두 다리와 지팡이라는 세 개의 다리가 땅에 닿아있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상징입니다. 약속의 명단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합을 이루었을 때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리가

세 개인 모세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다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막힘없이 내려와 땅에 닿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든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내려와서 모세를 붙잡고 역사해 가시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독사 새끼로 비유되는 마귀의 자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지정의(知情意) 육의 결합체를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땅까지 내려와 닿을 수 없습니다. 땅에 닿는 다리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하나님의 주권이 붙잡으시면서 다리가 세 개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지정의 육을 자기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리가 없는 뱀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 땅에 머물면서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스스로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사람을 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와 땅에 닿았고, 그 주권이 지팡이를 쥐듯이 모세를 쥐고 있습니다. 마치 다리가 세 개인 상황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올 수 없기에 다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팡이로 잡으실 수도 없기에 뱀처럼 배로 기어다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은 이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듭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모세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무가 소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불붙은 떨기나무는 불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떨기나무인 모세는 1cm도 자신을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본문의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이 지팡이는 특별한 마술적 힘이 담긴 이상한 물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등의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기에 지팡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떨기나무는 불을 유지하기 위해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붙은 떨기나무는 앞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마음은 출애굽이라는 상황에 붙어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은 육체의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영으로써 공백을 갖고 있어서 있음을 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영이 아니라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떨기나무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란 영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빠져나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의 결합체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힘이 내려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는 '휴대용(Portable) 떨기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지정의 육의 결합체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의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 주신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적 상징물을 상응시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지팡이는 모세의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붙잡고 기적을 행하시는 상황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내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상황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는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하나님 아버지와의 조합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정의 육의 결합체는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내려와 닿은 상태에서

쥐고 계신 지팡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모습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의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애굽을 초토화한 끝에 250만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킵니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빠져나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은 더는 지정의 육의 결합체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와 땅에 닿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몸으로 사는 인생의 두 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내 마음이 빠져나간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손에 쥐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모습에 담겨있는 내막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눈에 보이게끔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내려와 지정의 육의 결합체의 두 다리가 되십니다. 또한 내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지팡이로 손에 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실 일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것들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과제를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에 두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대상에 대해서 나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닿도록 내려와 두 발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정의 육의 결합체인 나를 지팡이로 쥐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두 다리와 지정의 육의 결합체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세 개의 다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과제나 문제, 어떤 현상이나 사건, 사물이나 사람을 상대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이 일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와 붙잡으시는 세 번째 다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주권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뜻하고 계획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두 다리에 보태어서 지팡이라는 세 번째 다리가 되어드리면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팡이라는 세 번째 다리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 휴대용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이 지정의 육의 결합체로부터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내려와 두 다리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두 다리가 될 수 없다면 나의 몸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없다면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다니는 독사의 새끼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 개의 다리가 있게 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뛰는 경기를 이인삼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둘인데 다리는 셋입니다.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이인삼각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그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을 입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보다 정확한 모습은 지팡이를 든 모세와 같습니다. 네 인격이 있는데 다리가 세 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인격이 있고 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두 다리와 지정의 육의 결합체라는 지팡이로서의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인격에 세 다리입니다. 이를테면 사인삼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모습은 약속의 명단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합을 이루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빠져나간 지정의 육의 결합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지팡이를 던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내 몸이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의 두 다리가 땅에 닿지 않고, 지정의 육의 결합체가 지팡이가 되지 못하여 세 개의 다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럴 때 지팡이가 뱀이 되었듯이 우리는 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은 스스로 주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정의 육의 세 번째 다리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 개의 다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리가 없기에 뱀처럼 마음의 배

를 땅에 붙이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명단에 있는 자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라 불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네 인격 세 다리의 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인격과 세 다리를 이를테면 사인삼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사인삼각의 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들은 약속의 명단에 있어서 세상에 태어난 자들 중에 장자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21~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재앙의 마지막은 바로의 장자를 포함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다시 말해 장자의 자리로 올라갈 자들이 약속의 명단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장자란 아버지 다음의 서열을 가진 자입니다. 서열 두 번째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 자가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장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한 집안에서 장자는 언제나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신약에서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에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나는 자들이 약속의 명단에 있는 선민들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자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가 입을 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했고, 신약 이후로는 오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란 아버지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장자의 위치에 설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아버지의 속성이 유전자처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심 등의 다양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내게로 유전되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속성이란 유일하신 있음과 유일하신 좋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스스로 있음이고 나머지 것들은 있게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스스로 좋음입니다. 어떤 것도 진정한 좋음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좋음인 아버지와 연합할 때 모든 것이 좋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라는 속성을 유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장자입니다. 장자의 자리는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았던 독사의 새끼였던 상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머묾으로써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라는 속성을 유전자로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은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있음을 받아들인 나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음을 받아들이기에 나도 예수님이 태초부터 누리시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자리에 서야만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과 같은 세 다리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약속의 명단에 있는 자들은 창조주로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낳으신 자들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형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지만 동생은 십자가 생활화를 합니다. 형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드신 자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약속의 명단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낳으신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드신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낳으신 자들입니까? 이 세상의 80억 인구 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없다면 장자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이라는 속성을 유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부 하나님이 창조

주로서 만드신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한 죽음이란 주체성이 죽는 것이고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장자의 자리에 서서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유전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명단에 있는 자들이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낳으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자 장자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입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은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예수님의 몸을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몸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몸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장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장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유전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는 동안 내 마음과 주체성은 하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지정의 육의 결합체에는 내 주체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내 주체성이 없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오셔서 땅에 닿아 두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쥔 것처럼 나의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손에 쥐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개의 다리를 가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서 뜻하고 계획하신 바를 따라 이 땅에서 무엇이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바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일이 있고, 직장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역할일 뿐입니다. 내가 주력할 일은 감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위해 모세에게 필요했던 조건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붙는 것뿐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불리는 지정의 육의 결합체를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두 개의 다리와 지정의 육의 결합체로서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세 개의 다리로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닿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주체성은 하늘로 올라가 장자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유전자로 받아들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고,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세 개의 다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두 다리와 지정의 육의 결합체로서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세 번째 다리를 가지고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정의 육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눈에 보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다리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위일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위일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장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장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있음의 존재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의 존재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소망하는 기쁨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내려와 두 다리를 이루시고, 지정의 육의 결합체는 하나님의 세 번째 다리가 될 것입니다.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스스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네 인격의 세 다리 사인삼각의 형태로 여러분의 삶이 근사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땅에서 사인삼각의 기적 같은 조합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땅에서 제2의 제3의 출애굽과 같은 인생이 우리 각자에게서 쓰이고 기록되고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